

김병현 “나는 계속 던지고 싶다”

**KIA 보류선수 명단 제외
2014년 넥센과 트레이드
맞은 부상에 1군 못뛰어
“좋지 않을 때 돌아와
잘 못해서 아쉽다”**

“오고 싶지 않을 때 온 것 같다. 잘할 때 와서 잘했어야 했다”며 ‘핵심수첩’ 김병현(37)이 고향팀 유니폼을 벗는 심정을 밝혔다.

KIA는 시즌이 끝난 뒤 보류선수 명단을 새로 작성하고 있다. 내년 시즌 재계약 대상자를 의미하는 보류 선수 명단에 김병현의 이름이 빠졌다. 이는 ‘방출’, 작별을 의미한다. 이로써 지난 2014년 4월 넥센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고향팀으로 돌아왔던 김병현은 은퇴와 이적을 놓고 갈림길에서 서게 됐다. 하지만 김병현은 은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잘하는 게 이것밖에 없다.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는 하다”며 특유의 웃음을 보인 김병현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야구다”고 선수생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광주이고 출신의 김병현은 한국을 대표하는 ‘잠수함’이었다. 성공관대 재학시절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유니폼을 입게 된 그는 1999년부터 바리거로 뛰었다.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피칭과 백직구 등으로 빅 리그에서도 주목을 받은 그는 2001년과 2004년에는 각각 애리조나와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월드시리즈 반지까지 차지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로도 우뚝 섰지만 가슴 한 곳에 진한 아쉬움과 의문이 남아 있었다.

김병현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 한국에 온 이유도 이것이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그걸 풀고 싶어서 온 것이다”며 “성적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다. 미국에



서도 성적이 좋았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마지막 길이 남겨져 있는 것 같다. 원없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 정도였구나를 확인하고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2011년 라쿠텐 골든이글스를 통해 일본 무대로 진출했던 그는 2012년 넥센을 통해 한국으로 왔다. 그리고 2014년 그리던 고향 팀으로 돌아와 또 다른 야구 인생을 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김병현은 2014년

7.10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 6패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갑작스러운 맹장수술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지난해에도 5패 2홀드를 남겼고 평균자책점은 6.98이었다. 올 시즌에는 골반 통증 등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끝내 1군 마운드에 밟지 못했다. 퓨처스리그 기록도 15경기 출전 1승1패2홀드, 평균자책점 7.36이었다.

올 시즌 아쉬운 성적에도 마운드에 대한 김병현은 갈망은 컸다. 오랜 시간 골반 통

증에 시달리면서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만큼 선수 생활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다만 그의 제 2의 야구 무대와 야구 종착점이 고향팀 KIA가 아니라는 것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병현은 “내가 너무 좋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모습으로 가기 싫었을 때 고향팀으로 오게 된 것 같다. 잘했어야 했는데 아쉽다”며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다.

새로 팀이 바뀌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가 잘 못했다” 아쉬운 심경을 밝혔다.

김병현은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면 타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

김병현이 KIA와 작별 수순을 밟게 되면 올 시즌 은퇴식을 통해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서재용·최희섭에 이어 ‘광주이고 바리거 3인방’이 모두 타이거즈의 아쉬운 추억으로 남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년 20억 최고 대우 김태형 두산 감독 재계약

두산 베어스는 10일 김태형 감독과 3년 총액 20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두산 구단 사상 감독 최고대우다.

한국시리즈 2연패의 위업이 이런 결정의 밑바탕이 됐다. 김 감독은 부임 첫해인 지난해 두산을 14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고, 올해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용병술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두산의 21년 만의 통합 우승 및 창단 첫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했다.

김 감독은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 야구 감독을 맡아 2년 연속 한국시리즈에서 우승도 하고 이렇게 감독으로서 최고대우를 받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감독으로서 지난 2년간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선수들과 코치진의 노력,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 그리고 아낌없는 투자로 강팀의 기반을 만들어준 구단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MLB 사무국

김광현·차우찬 신분조회 요청

미국 메이저리그가 올해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취득한 원소 투수 김광현(28·SK 와이번스)과 차우찬(29·삼성 라이온즈)에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드러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8일 MLB 사무국으로부터 김광현과 차우찬에 대한 신분조회를 요청받고, 두 선수가 현재 FA 신분이며 11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 체결이 가능한 신분임을 통보했다”고 10일 공개했다.

이날 KBO는 FA 신청선수 15명의 명단을 공시했고, 여기에는 김광현과 차우찬 모두 포함됐다.

신분조회는 한·미프로야구 협정에 따라 상대 리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절차다. 한국선수 영입을 희망하는 미국 구단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통해 KBO에 해당 선수의 신분조회를 요청하면 KBO에 해당 선수의 신분을 명시해 답신한다.

김광현과 차우찬에 관심을 보인 구단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입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때 선수 신분조회를 요청한 메이저리그 구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2020년 도쿄올림픽 야구 후쿠시마서 개최키로

2020년 도쿄올림픽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 일부가 지진 피해를 본 후쿠시마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9일 집행위원회 열고 2020년 하계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야구와 소프트볼의 예선 경기 일부를 후쿠시마 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후보 도시는 후쿠시마, 고리야마, 이와키 세 곳이다.

리카르도 프리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은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후보 도시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6~8일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강정호·추신수·이대호·김현수 WBC 엔트리 포함

오승환 제외

메이저리그 마무리 투수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이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타자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대표팀에 들어갔다.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뛰었던 이대호도 엔트리에 포함됐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10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내 KBO 회의실에서 WBC 기술위원회를 열고 오승환을 제외한 WBC 최종 엔트리 28명을 발표했다.

김 감독은 “올해 한국 야구에 불법도박, 승부조작 등 안 좋은 일이 많았다”며 오승환을 엔트리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승환은 지난해 말 해외 원정 도박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임창용은 오승환과 함께 해외원정 도박 파문을 일으켰으나, 범원의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과 KBO의 시즌 50% 출전 정지 처분을 소화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으나 지금은 부상으로 재활 중인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도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한국은 3월 6일 이스라엘과 경기를



시작으로 7일 네덜란드, 9일 대만과 차례로 A조 경기를 치른다. 한국 경기는 모두 오후 7시에 시작한다.

1라운드 경기에 앞서 열린 공식 시범경기 일정도 확정됐다. A조에 속한 각 팀은 3월 2일부터 5일까지 상무 또는 경찰야구단과 2경기씩 시범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심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상은 조별로 모든 팀이 한 번씩 경기하는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조 1·2위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라운드에 진출하며, 동일 승률이면 플레이오프가 열릴 수도 있다.

2라운드에서는 A조와 B조(일본, 쿠바, 중국, 호주)의 1·2위 4개 팀이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도쿄돔에서 1라운드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펼친다.

훈련중 발등 다쳐 두 바늘 꿰매

15일 우즈베크전 출전 불투명

축구대표팀에 악재가 터졌다. 대표팀 이청용(크리스탈팰리스)이 발등 부상으로 11일 캐나다전에 결장한다. 15일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우즈베크스탄전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표팀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10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청용의 부상소식부터 알렸다.

그는 “어제(9일) 이청용이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하다가 발등을 다쳤다. 이청용은 천안에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청용은 연습 경기 도중 슈팅을 하다가 팀 동료의 스파이크에 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스파크의 징 두 개가 오른쪽 발등에 찔렸다”라며 “이청용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MRI 촬영 등 정밀 검진을 받았으며 단순 자상(刺傷) 진단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부상 부위는 녹는 실밥으로 두 바늘을 꿰맸다”라고 밝혔다.

심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상은 조별로 모든 팀이 한 번씩 경기하는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조 1·2위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라운드에 진출하며, 동일 승률이면 플레이오프가 열릴 수도 있다.

2라운드에서는 A조와 B조(일본, 쿠바, 중국, 호주)의 1·2위 4개 팀이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도쿄돔에서 1라운드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펼친다.

이청용은 현재 서울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이재성에 이어 이청용도 다쳤다. 측면을 담당하는 두 선수가 모두 빠지는 바람에 구

슈틸리케호 악! ...이청용 부상



캐나다를 상대로 친선경기를 하는 울리 슈틸리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0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 통해 이청용 선수의 부상 소식을 전하고 있다.

상이 틀어졌다”라고 말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캐나다전에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청용의 우즈베크전 출전 여부는 회복 상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며 “캐나다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면을 대신할 선수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황희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되면 캐나다전에서 황희찬을 측면에 써보겠다”라고 말했다. 캐나다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는 이청용, 이재성 외에도 많다.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홍철(수원)이 결장한다.

슈틸리케 감독은 “내일 경기에서 몸 상

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은 기용할 생각이 없다”라며 “특히 손흥민은 대표팀 합류 후 정상 훈련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말했다.

부상 선수 외에는 출전 시간을 골고루 배분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은 “한 선수가 캐나다전과 우즈베크전에서 모두 풀타임 출전하는 경우는 피할 것”이라며 “선수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내일 경기에선 교체카드 6장을 모두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란전에서 점유율은 58%로 매우 좋았는데, 패스 성공률은 77%로 떨어졌다”라며 “문전에서 적극적으로 마무리하는 상황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